

2배 급증 당원 표심이 후보 결정

국힘 대선 후보 선출 D-4 오늘부터 당원 57만명 투표 주자별 막판 세 불리기 치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본선에 진출할 당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앞서 1·2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순)를 대상으로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 최대 득표한 1인이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 31일 서울·인천·경기 합동토론을 끝으로 10차례에 걸친 TV 토론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1일부터는 당원 투표가 시작된다. 당원 투표는 1~2

일 모바일 투표와 3~4일 전화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3~4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별도 진행된다.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수가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28만 명에서 57만여 명으로 갑절 이상 늘어난 만큼 신규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남은 한 주 총력전 체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최종 합산 10~15% 포인트 격차로 홍준표 의원에 낙승을 거둘 것'이라 기대하며, 민심과 당심의 고른 지지를 얻기 위한 막바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조만간 광주를 방문해 지난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을 사죄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야권 1위 자리를 굳혔을 뿐 아니라 당원들 사이에서도 윤 전 총장에 '끝내 크로스'를 이뤘다고 자신하는 분위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1대1 가

상대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선 경쟁력을 부각한다.

최근 일부 조사에서 지지율 20% 선 위로 올라서며 저력을 보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경제·안보 분야 전문성을 내세우며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이재명 후보 패러기에 앞장서 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도 2030 세대 지지에 힘입어 선두권 진입을 가시권으로 보고 있다.

주자 간 세 불리기 경쟁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판세를 주시하며 눈치 싸움을 벌여온 당 안팎 인사들이 특정 캠프로 몰리며 막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30만 명에 가까운 신규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정말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외의 결과가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지지 박주선·김동철은 철새 정치인의 추락”

민주 광주시당·지역민 비판

광주에서 4선 의원을 지낸 박주선·김동철 전 국회의원도 국민회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 선언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호남 중진인 이들 두 사람의 윤석열 후보 지지에 '철새 정치인의 추락'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두 정치인의 윤 후보 지지 선언은 놀라운 게 아니다”며 “박 전 의원은 과거 박근혜 후보를 대선에서 지지하겠다고 나섰다”고 참모와 지지자의 만류로 포기했고,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도 아니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한때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탈당한 뒤 이런 정치 행보를 보인 분들이 윤 후보를 지지

하겠다고 하니 지지율에 보탬이 될까 궁금하다”며 “전두환을 미화하는 후보의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 가야 되겠느냐. 두 철새정치인 추락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다”고 혹평했다.

박주선·김동철 전 의원과 함께 민생당에서 활동했던 지역 정치인들도 “이들 두 명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 후광으로 정치를 시작해 출세한 사람들로, 지역에서 4선까지 한 사람들이 지역 정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면서 “특히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과'로 지역민을 우롱한 경선 후보를 지원하고 나선 것은 16년을 국회의원하게 해준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 욕심만 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주선·김동철 전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 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넷볼'(영국에서 농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대사면’ 카드 꺼낸 이재명 복당·열린민주 통합 급물살 타나

보수대통합론 맞서 지지세 ‘영끌’ 이낙연측 향한 화합 차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31일 여론 대통합과 당내 대사면 카드를 던지며 범여권 결집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에 따라 탈당자들의 복당,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양자 구도의 박빙 승부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깃발 아래 진보진영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 결정 이후 야권의 통합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응해 여론 지지세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수대통합론에 맞서 범여권의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깊어진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과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당내 화합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대사면”의 의미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이나 탈당 등 해당 행위에 대해 입당을 거부하거나, 입당해도 공천 시 감점을 하는 제재가 있다”면서 “여권의 정치적 대통합이 필요하다. 일종의 정치적인 대사면을 해서 최대한 통합하고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국민의당으로 탈당했던 호남 인사들과 동교동계의 복당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 수 있다.

최근 박주선·김동철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

장을 지지한 상황에서, 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은 물론이고 구민주계를 끌어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다만 당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계에서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를 공격하며 집단 탈당한 이들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정대철, 권노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의 입당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반발만 부른 채 실제 진척되지는 않았다. 당내 인사를 입당에서는 ‘잠재적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현실론도 고려해야 한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경선이 진행 중이던 이달 초에도 열린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전투력이 일부 상실된 느낌”이라며 “기회가 되면 같이 가는 게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 역시 당장 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지지자와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 국민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제3지대냐 단일화냐...안철수, 오늘 대선 출사표

세번째 대권 도전 내년 대선 4자구도 출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대선의 초반 레이스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 간의 4자 구도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1일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출마 선언식은 2030 세대 청년 3명이 안전·미래·공정을 키워드로 릴레이 연설을 하는 것으로 시

작, 안 대표의 출마선언 발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 대표의 공식 등판으로 차기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 원내 정당 기준 4자 구도를 확정 짓게 됐다. 여기에 ‘새로운물결’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더하면 5자 구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의 관심사는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또는 제3지대 후보와 단일화를 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으며, 이후엔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추진하

가 결정됐다. 안 대표는 당분간 단일화 논의에 거리를 두고 본인의 비전을 알리는 독자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11월 5일)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후보와 초반 경쟁 구도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출마선언을 하는 11월 1일이 국민의힘 분권선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맞붙’ 성격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지지율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주요 변수다. 여론조사상 5%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단일화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